



- **北 김정은,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시찰(12/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봤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마식령호텔과 스키봉사(서비스) 및 숙소 건물들을 둘러보고 식당, 상점, 출판물판매소, 간이매대 등을 찾아 서비스 준비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삭도(리프트)를 타고 정점(꼭대기)까지 오른 뒤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됐고 주로 상태도 나무랄데 없다"고 평함.
 - 스키장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제1부부장, 박태성·황병서·김병호·마원춘 부부장, '김정일 금고지기'로 불린 전일춘 39호실장, 박명철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조선총련 의장에 새해 축전(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허 의장을 비롯한 조선총련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지난해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총련 조직을 반석같이 다지고 재일 조선인 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올해 첫 공식활동(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새해 2014년에 즈음해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밝힘.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고 소개하면서, 또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 명의의 화환을 헌화함.
 -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비서,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 강조...南 호응 촉구(종합2보)(1/1,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을 강조하고 남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TV를 통해 전한 것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오전 9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갈 것이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매체 '신년사 과업 관철' 결의 대대적 선전·독려(1/2,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2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과 4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희망찬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신년사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사설에서 신년사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 지침"이라며 "전체 인민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올해에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강성국가 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가 분석한 북한 신년사... "농업에 초점"(1/2,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가 농업을 강조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힘.
- 신문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2014년 신년사가 예고하는 새로운 비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년사가 농업, 건설, 과학기술 등 3개 분야의 혁신과 성과를 지적했다며 "여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정한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신문은 "김정은 시대의 '인민정치'는 우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준을 맞추었다"며 "최고영도자의 의향에 따라 최근 시기 이 부문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도입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고 밝힘. 그러면서 협동농장에서 가족영농제와 비슷한 포전담당제의 실시로 농민의 '일욕심'이 커지고 증산이 이뤄졌다고 주장함.

● 北 김영남·박봉주도 '한발' 앞서 금수산 참배...왜(1/2,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전날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



배한 사진을 1면에 크게 실음.

- 사진을 살펴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 부부와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봉주 총리 등 4명만 다른 간부들보다 한발 앞에 서 있음. 또한, 리설주 바로 오른쪽의 최룡해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간부들과 박봉주 왼쪽에 선 김기남·최태복 노동당 비서 등 다른 간부들은 모두 한발 뒤 편에 있음.

● 北, 금속공업상 교체... '張 속칭' 관련성 주목(1/2, 조선중앙TV)

- 북한이 내각 금속공업상을 김용광으로 교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금속공업성 간부들의 '반향'을 내보내며 첫 발언자를 '금속공업상 김용광'으로 소개함.
- 김용광 신임 금속공업상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으로, 2008년 6월 금속공업성 부상에 올랐으며 2010년 9월부터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배인을 지냈고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에는 국가장외위원회에 포함됨.

● 北 노동신문 '청춘 김정은 시대' 띄우기... 그 속내는(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2면 '청춘조국 송가'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마식령스키장 등 김 제1위원장의 치적 사업들을 열거하며 북한이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젊어지고 솟구치고 있다"라고 주장함.
- 김 제1위원장이 지닌 젊음은 '축복'이고, '행운'이라며 "젊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오늘도 위대하지만 내일은 더 눈부실 것", "불타는 젊은 속에 세상을 놀래우는 원숙함이 있고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약속돼 있다"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2년째 연말연시 '올해의 사람들' 챙기기(1/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군부대 수산사업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주 동안이나 평양에 머물며 특별한 환대를 받아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오늘 평양을 떠났다"고 전했는데, 평양 방문 목적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회의가 끝나고도 1주일 넘게 평양에 머물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최 연회와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각종 놀이공원 관람은 물론 치과 치료까지 받으며 '호사'를 누림.



- **北 박봉주 총리, 건설현장 잇단 시찰...이번엔 발전소(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안북도 향산군의 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인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장 등 경제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박 총리는 희천 5호, 8호, 9호, 11호 발전소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협의회를 열어 발전소 완공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함.

- **北 '張속청' 후 잇단 내각 물갈이...석탄공업상도 교체(1/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5일에는 석탄공업상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열린 평안남도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소식을 전하며 보고회에 참석한 석탄공업상을 문명학으로 소개함.
 - 과거 북한 매체 보도에서 석탄공업상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작년 1월 3일이며 당시 석탄공업상은 림남수였음.



■ 김정은동향

- 12/31,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시찰(12.31, 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강석주, 김양건, 한광상, 전일춘,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리재일, 황병서, 김병호, 마원춘, 박명철 동행
 - 하루빨리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운동하게 하라고 지시
 - 김정은, 와우도구역 해방소학교 교직원 학생 등에 감사 전달(12.31, 중방)
- 1/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12.31 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1.1, 중통·중·평방)
 - 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조선인민군 11월16일공장 참관(12.31, 중통·평방)
 - 2014년 1월1일 09시부터 '김정은 육성 신년사 발표' 예고(1.1.08:00, 중·평방)
- 1/1, 김정은 黨 제1비서, 1.1 새해 '신년사 발표(1.1, 중통·중·평방·조선TV)
 - 2013년은 '병진노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해'라고 평가하며 '2014년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강조하고
 - '올해에 농업·건설·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과업을 제시
 - '나라의 방위력 강화와 정치사상 진지강화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 대중적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한다'고 지적
 - 또한 '남북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며 '비방증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1/1, 김정은·리설주, 1.1 새해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1, 중통·중·평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등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신년사 과업관철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1.4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4, 중통)
 - 리영길(軍 총참모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보고) 등 참가
 - 박봉주(내각 총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및 평남 개천시 용진협동농장 현지요해(1.5, 중통·중방)
 - 평안남도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창립('84.1.6) 30주년 기념보고회, 1.5 문명학(석탄공업상)·홍인범(평남 당책) 참가下 진행 및 黨 중앙위 축하문 전달(1.5, 중통·중방)
 - ※ 석탄공업상 : 리영용 → 문명학 교체 확인

나. 경제

- 北에 '가족영농제' 뿌리내리나... "새방식 모두 환영"(12/30, 연합뉴스;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내년부터 가족 단위 영농제라고 할 수 있는 '포전담당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주목되며, 북한 내각은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내년 농사만 단일 안건으로 다룬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의 원만한 실행에 집중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밝힘.
 - 특히 회의에서는 ▲올해 시행된 분조관리제의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는 문제 ▲농장원이 자신의 포전을 알뜰히 관리하면서 농사를 책임지고 하기 위한 문제 ▲각 협동농장에서 분조장을 능력 있는 농장원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 등이 강조됨.
- 북한, 중국 지방정부에 경제개발구 지원 타진(12/30, 길림신문)
 - 북한이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각지에 지정한 경제개발구 건설을 위해 중국 측에 지원 의사를 타진하고 나섰다고 30일 중국 길림신문(吉林新聞)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 대외사업국 김경호 국장은 최근 양강도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중국 지린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을 방문, 추라이푸 현(縣)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회담함.
- 北, 모내기 시작...손으로 모심기 눈길北, 모내기 시작...손으로 모심기 눈길(12/30, 조선중앙TV; 조선신보)
 - 북한 조선중앙TV는 11일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30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수확된 농산물에서 국가납부 몫을 바친 나머지를 (개인들에게) 현물로 분배한다"라며 "현물분배를 받은 농민은 농산물을 자기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전함.

● **北, 對中 무연탄 수출 '張 속칭' 직전까지 증가(12/31, 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초 장성택 속칭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1월 한 달간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은 1억 2천145만 달러 어치로 10월(1억284만 달러)보다 약 18%(1천860만 달러) 증가했으며, 이로써 북한의 월간 대중(對中) 무연탄 수출은 지난 8월 6천437만 달러에서 9월 9천165만 달러로 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北 '희토류 전쟁' 또 소개...자원수출 다양화 관심(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는 희유(희귀)금속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희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희토류가 전자공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며 "현시기에 와서 희토류금속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는 속에서 희토류를 손에 넣기 위한 여러 나라들 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함.

● **北 "마식령속도, 김정은 진군속도"...경제건설 독려**

- 노동신문은 4일 최근 완공한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을 앞세워 경제 건설에 총력을 쏟아내고 호소함.
- 신문은 1면에 게재한 사설 '마식령 속도를 창조한 기세 드높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자'에서 "오늘의 총진군은 마식령 전역에서 창조된 새로운 진군속도로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라고 주장함.
- 이어 "지금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들은 마식령 스키장의 완공과 더불어 건설의 최전성기를 안아온 크나큰 공지에 넘쳐있다"며 '마식령 속도'를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진군속도"로 찬양함.

다. 군사

● **北, 김정은 신년사 과업 관철 軍 쫓기모임 개최(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에 해당) 군인 쫓기 모임이 4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함..



- 신문은 리영길 총참모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궐기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호명하지 않음.

라. 사회문화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일 맞아 '축제분위기'(12/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군 협주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인 '무장으로 받들자 김정은 장군'이 진행됐다고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정·군 간부와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이 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합창곡 '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등 김정은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음. 또한, 평양의 당 창건 기념탑, 평양체육관, 개신문 광장 등에서는 청년학생들의 경축 무도회도 열림.

● 北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 경축 무도회北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 경축 무도회(12/30, 조선중앙TV)

- 평양 모란봉극장과 동평양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과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음악 공연이, 평양교예극장과 보통강교예극장에서는 교예 공연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함.
- 이 밖에도 근로자와 청년학생이 전국 각지에서 시와 노래, 웅변 모임을 열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한편 중국 '항일열사' 장울화의 유가족과 북한 아동을 돕는 진달래 아동기금 회장인 진달래 사파리니는 김 제1위원장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냈음.

● 새해 첫날에 들뜬 北...불꽃놀이·공연 이어져(종합)(1/1, 조선중앙TV)

- 평양에서는 1일 새벽 0시 대규모 불꽃놀이가 벌어졌고, 전국 각지에서 설맞이 공연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함.
- 조선중앙TV는 새벽 평양 김일성광장을 가득 메운 평양시민이 환호하며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모습을 생중계했으며, 노동신문도 '강성조선의 미래를 약속하는 환희의 불보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평양에서 축포가 발사됐다고 전하며 현장의 축제 분위기를 담은 사진을 함께 실음.

● 北 함흥에도 현대식 물놀이장 건설(1/4, 노동신문)

-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변에 현대적인 물놀이장이 완공됐다고 노동신문이 4일 전함.
- 9개월 만에 완공된 함흥물놀이장은 4만 5천여㎡의 부지에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 유희시설, 체육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신문이 설명했으며 "함흥시의 곳곳에 청년공원유희장, 은정공원, 성천공원 등이 꾸러지고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건설돼 당원과 근로자, 청소년 학생



이 한겨울에 물놀이를 하게 됐다"고 밝힘.

2. 대외관계

가. 일반

● 中, 내년 두만강에 교량 신설…北 나선특구 직통(12/30,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중국이 내년에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30일 전함.
- 바인차오루(巴音朝魯) 지린(吉林)성 성장은 장춘(長春)에서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북한 접경 위안허(圈河)지역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새 교량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힘.
- 지린성 인민대표대회는 수년 전부터 기존 교량이 노후해 양국의 인적 왕래와 화물 운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량 신설이 시급함을 지적해왔으며, 기존 교량은 1937년 건설됨.

● 北, 中 연변대 교수에 박사학위 수여(12/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일 중국 연변대에 근무하는 교수 3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연변대 교수인 김은송과 조홍화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한민족의 철학·윤리를 체계화한 공로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음. 또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학문적으로 이바지한 황금해에게는 경제학 박사학위가 수여됨.
- 북한은 과거에도 한민족 문화나 북한 발전에 공을 세운 중국 대학 교수에게 학위를 수여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북한말 발전에 이바지한 연변대 교수 김성희, 황선자, 려문호가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음.

● 北 통신 "미국이 아태지역 평화 위협…억제력 필요"(12/30,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30일 '지역 평화의 방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북한의 군비 강화 노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과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괘변'이라고 비난함.
- 이어 미국이 "핵무기를 비롯한 무력의 현대화와 전쟁 책동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그 노력들을 엄중히 저애(방해)하는 화근"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우리의 국방력 강화가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은 물론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려는 임의의 도발에도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며 북



한의 군비 강화 노력을 정당화함.

● **北 피바다가극단, 中 옌벤 겨울축제서 상설공연(12/31, 연변일보)**

- 북한이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유명 가극단이 중국 지린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의 겨울관광축제에서 상설공연에 들어갔다고 31일 연변일보가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3대 가극단 가운데 하나인 피바다가극단은 지난 주 개막한 '2013 지린·옌지 창바이산 국제빙설축제'에 참가해 매일 저녁 한차례 공연하고 있음.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축제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임.

● **北, 러시아 테러사건에 위로전문…"온갖 테러에 반대"(12/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1일 러시아 볼고그라드에서 최근 발생한 연쇄 테러사건에 대해 "온갖 형태의 테러 행위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볼고그라드 테러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으며, 이어 "이번 테러 후과(여파)를 하루빨리 가시고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모든 노력에 전적인 연대성을 보낸다"고 덧붙임.

● **"北, 관광객에 점차 개방적…새해 첫날 가정집 공개"(1/2,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새해 첫날 일반 가정집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전함.
- 미국인 관광객 5명을 데리고 북한을 방문 중인 북한전문여행사 '우리투어'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1일 VOA와 인터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례적으로 새해 첫날 북한의 가정집을 방문했다고 밝힘.
- 리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은 가정집 2곳은 북한이 과학자 가족을 위해 새로 지은 주택단지라며 관광객들은 북한 주민과 거주지, 직업, 가족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했다고 소개함. 이에 앞서 미국인 관광객들은 1일 0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15~20분 가량 열린 불꽃놀이 행사에도 참석함.

● **"北 마식령 스키장에 유럽산 장비 설치"(1/3, RFA)**

- 북한이 지난달 31일 개장한 강원도 마식령스키장에 고가의 유럽산 장비가 설치돼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함.
-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엔케이뉴스'(NKnews)의 채드 오코렐 편집장은



- 김혁철 대사는 2010년 11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에 임명됐고 2011년 말부터 수단 대사도 겸임해 와 북한이 스페인에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부임지를 옮긴 것으로 보임.

● 로드먼, 평양 친선경기 농구팀 명단 발표(1/5, AP통신)

-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오는 8일 북한 평양에서 개최되는 미-북 친선 농구경기에 참가할 NBA 출신 농구팀 명단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이 5일 밝힘.
- 농구팀은 케니 앤더슨, 클리프 로빈슨, 빈 베이커, 크레이크 호지스, 덕 크리스티, 찰스 스미스 등 NBA 출신 은퇴 선수들로 구성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어선 동해 NLL 남하...단순 표류 추정(종합)(12/30, 연합뉴스)

- 한 어선이 30일 오후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내려와 해군 함정이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오늘 오후 4시께 울릉도 동북방 50~60마일 지점에서 해군 초계함이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했다"며 "이 어선은 엔진이 고장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군은 북한 어선이 엔진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NLL을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은 NLL 남쪽 10마일 지점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짐.

● 北 대화공세 본격화하나...조평통 내세워 "관계개선"(1/2, 우리민족끼리 TV)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새해 벽두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2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가 이런 내용을 담은 조평통 서기국의 전중수 부국장과 황철 부장, 로학철 부장의 인터뷰 방송을 내보냄.
- 전중수 부국장은 지난해 6월 무산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의 북측 대표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며, 황철 부장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분야에서 활동해왔음.

● 北 매체, 연일 "남북관계 개선" 공세(1/3, 우리민족끼리)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기고문을 잇달아 게재함.
-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의 고동철은 기고문에서



김 제1위원장이 제시한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이 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방향과 방도"라며 "올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 가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김해경도 "나라의 통일은 철저히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설 때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실현해나갈 수 있다"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함.

● 北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 남북관계 개선 결의(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접한 각계 반향이라며 작년 6월 남북 당국회담이 이른바 '격'(格) 논란으로 무산됐을 때 북한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강지영 명의의 '결의'를 실음.
- 강지영 서기국장은 "우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안의 전체 일꾼들은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를 파악하고 조국통일운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함.

● 北조평통, 南 신년군사훈련 비난..."남북관계에 찬물"(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우리 군이 최근 벌인 훈련 등을 거론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 데 대해 남한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고 비난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남조선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北, 합의깨고 개성공단 기업에 올해분 세금납부 요구(종합)(12/30, 연합뉴스)

-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세무소는 지난 23일 입주 기업들에 보낸 '미납 세금 독촉 공문'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밖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밝힘.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 "비핵화 논의 공은 북한에...도발행위 안돼">(1/4, 연합뉴스)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나 협상 재개 등을 위한 공(onus)은 북한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프 부대변인은 또 오는 7일 열리는 윤병세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 간 회담의 핵심 의제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부연했으며, 다른 여러 현안도 다뤄질 것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 대상은 열거하지 않았다.
 - 이어 내달이나 3월 진행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즈음해 북한의 도발적 행위나 위협적 언사의 수준이 고조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은 이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미·북 관계

- <미국 "새해 대북정책 목표도 비핵화">(1/3, 연합뉴스)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로, 그 부분에서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하프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을 말보다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달 31일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제는 중국과 계속 대화하는 주제"라고 말했으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분석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음.

다. 기타

- <북, 내년 3월 도발 가능성>(12/31, 미국의소리)
 -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31일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강은 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가운데 장성택의 처형과 북한 내 군부 강경파의 득세로 군사



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는 어떻게든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中 "역사정의 수호하자"...韓에 '대일 공동대응' 제의>(12/3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회춘잉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우리는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함께 역사정의를 수호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또 "양국은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해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며 역사 문제에서 시대 흐름을 거스른 것에 대해서 양국은 함께 지극히 분개했다"고 덧붙였다.
- 특히 그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 아무리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일류국가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한다"며 중국은 역사정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소통을 유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중 외교장관 통화..."北동향 심도있게 논의">(1/1, 연합뉴스)

-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2월 31일 밤 왕 부장의 요청으로 저녁 9시30분부터 1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두 장관의 이번 통화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한중간에 이뤄진 최고 위급 협의로, 이번 통화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측은 올해에도 왕이 부장,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정상과 고위인사 교류를 심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한층 내실화하도록 긴밀히 소통·협력하기로 했음.
- 이와 함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바, 일각에서는 왕 부장이 한중 공조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대응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日, 내년 서울주재 외신 초청해 독도영유권 주장>(12/29,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과 베이징에 주재하는 외신 특파원 백수십명을 내년 3월까지 일본으로 불러 시마네현과 오키나와현 등지를 시찰하



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 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열흘 정도가 될 이 프로그램 일정에 독도와 센카쿠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 현지인과의 인터뷰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 사업을 위해 일본은 2013년도(2013년 4월~2014년 3월) 추정예산에 2억엔(약 20억원)을 편성했음.

● <윤병세 "한일관계 타격 불가피...日 진정성 조치 필요">(12/3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역사인식 및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확고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힌 뒤 일본 정부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윤 장관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실질 분야에서는 일본과 호혜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남수단의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것은 긴박했던 상황에서 자체 방위력 보강을 위해 UNMISS(유엔 남수단임무단)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서울에서 탄약을 추가 보급 받는 대로 UNMISS 측에 탄약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고노담화 내용 한국과 사전 조정...기만적" <산케이>>(1/1,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19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한국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음.
-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1993년 7월 26일부터 5일간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청취·조사하고서 고노담화 '원안'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에 한국 측이 약 10곳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보수 성향의 산케이는 고노담화의 유일한 근거인 위안부 피해자 조사는 졸속이었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안에까지 한국이 참여한 사실상 한일 합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담화의 기만성을 더 감출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담화 발표 당시 관방장관이던 고노 요헤이가 "담화 발표는 사전에 한국 외교부에 통고했는지도 모른다. 그때 취지도 전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한국과 조정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고 1997년 3월 31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실을 거론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관타나모 위구르인 석방에 "테러범 비호말라">(1/2,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2일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러 용의자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위구르인 3명을 석방해 슬로바키아로 보냈다고 대해 "테러리스트에게 안전을 제공하며 비호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과 연계됐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2008년 무죄가 입증됐지만, 미국은 이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측 송환요구를 거부해왔음.
 - 친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어떤 국가가 어떤 구실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반대한다며, 앞으로 슬로바키아에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정당한 요구를 제기할 것임을 밝혀 해당 위구르인들의 송환 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음.
 - 한편, 친 대변인은 최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은 반테러 문제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바 있음.

마. 미·일 관계

- <미국 "아베 참배에 '실망 메시지' 명확">(12/31, 연합뉴스)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직후 주일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가 잇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시된 '실망스럽다'(dissapointed)라는 표현을 언급한 뒤 "우리가 선택한 단어를 감안하면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어 그는 과거 일본 지도자들의 신사 참배 때와 비교했을 때 미국 정부의 이번 반응이 강경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황이 매번 다르다"고 말했다.
 - 하프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역내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논평을 한다"며 "미일 양국이 광범위한 사안에서 긴밀한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4월 일본 방문' 애초 확정된 적 없다">(12/29,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미국 대통령의 '4월 일본 방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 앞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달 조지타운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4월 아시아 지역 순방 예정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방문 국가는 말하지 않았으나, 이 발언 이후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내년 4월 실현시키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여러 변수를 종합해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봄 아시아를 찾을 경우에는 일본이 아닌 방문하려다 취소한 국가를 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이 소식통은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의 파장이 조만간 진정되고 미국과 일본 간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일정의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바. 중·일 관계

● <中해경선 센카쿠해역 진입...야스쿠니사태 이후 처음>(12/30,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29일 일본시간 오후 2시경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3척이 센카쿠 열도 12해리 해역에 잇달아 진입한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 중국 정부 선박이 센카쿠 12해리 해역 안에 진입한 것은 지난 22일 이후 일주일 만이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처음이며, 중국 배들은 약 3시간 동안 센카쿠 12해리 해역을 항행하다 오후 5시경 센카쿠 해역 밖으로 빠져나갔음.
- 이어 신문은 일본 외무성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에 대해 한츠창 주일 중국 공사에게 전화로 항의했다고 보도했음.

● <『日, 일본인 활동가 센카쿠 접근 규제 검토』<日신문)>(12/30,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자국 활동가들이 어민을 가장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선박이 일본 활동가들이 탄 배를 쫓아 센카쿠 12해리 해역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 선박의 센카쿠 진입에 명분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결국 아베 신조 정권은 센카쿠 방어력 강화를 피하는 동시에 센카쿠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판단됨.

● <中외교부 "중국지도자, 아베와 대면하지 않을 것">(12/30, 연합뉴스)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일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아베는 총리 취임 이후 중일관계에 있어 잘못을 거듭해왔고,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인류양심을 유린한 것이며 공리·정의에 대한 오만한 도발"이라며 "이런 일본 지도자를 중국 인민은 당연히 환영하지 않으며 중국 지도자는 그와 대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친 대변인은 "사실상 아베는 스스로 중국 지도자와의 대화의 대문을 닫



아걸었다. 중국인민은 그를 환영하지 않는다"며 "현재 아베가 해야 할 일은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이 한동안 열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대일 공세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됨.
- <“중국, 방공식별구역 3년반 전 일본에 제시”<日신문>>(1/1,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2010년 5월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중안전보장 문제연구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회의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 간부가 중국이 이미 설정했지만 아직 공표하지 않은 방공식별구역의 존재를 설명한 사실이 기밀로 분류된 발언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음.
 - 마이니치는 당시 중국이 설명한 방공식별구역이 작년 11월 중국이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센카쿠 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 당시 중국 해군 싱크탱크인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소속 준장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이 중국 측에 매우 가깝고 겹치는 부분이 약 100해리정도"라며 일본 항공자위대와 중국 공군의 항공기 간에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막는 규칙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함.
 - 그러나 회의에 출석한 일본 방위성 직원은 "중국이 국제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중복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표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룰지 언급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 <“일본 핵무기생산능력 미국과 맞먹는다”<中군기관지>>(1/2, 연합뉴스)
- 2일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 1일 '2013년 세계 핵 형세' 분석기사에서 '데이터'를 인용, "일본에 있는 6개의 핵연료재처리시설은 매년 9t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2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며 "생산능력으로 따지면 미국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 특히 해방군보는 작년 3월 일본 정부가 '핵무기의 국내 생산 가능성'에 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점을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 "1957년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2012년 일본 정부가 UN에서 공공연하게 핵무기 감축결의 초안에 서명을 거부한 점을 덧붙였다.
 - 중국이 신년 초부터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등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발신한 것은 국제사회가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 역시 핵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사. 중·러 관계

- <시진핑-푸틴, 신년축전 교환...'찰떡공조' 과시>(12/31,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와 함께 리 커창 중국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31일 서로 신년 축전을 보내면서 '찰떡공조'를 과시했음.
 -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수년간 국제정세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의 부흥을 함께 추진해 왔다"면서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푸틴 대통령도 축전에 "양국관계는 수년간 많은 좋은 소식을 만들어냈으며 특히 시 주석의 지난 3월 러시아 방문은 양국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국제사안에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드러냈다"고 화답했음.
 - 중국은 미국의 견제전략에 맞서 러시아와의 북방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중국 합정,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작전 동참>(1/3,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3일(현지시간)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폐기용 시리아 화학무기를 운송하는 작전에 러시아의 2만 5천 톤급 미사일 순양함과 중국의 4천 톤급 호위함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통신은 러시아와 중국 합정의 임무는 직접 수송 대신 덴마크와 노르웨이 호위함들이 수행할 화학무기 수송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임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덴마크-노르웨이연합 소함대 사령부 대변인 아이스타인 크바르빙은 러시아와 중국 합정들은 소함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작전 조율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 기타

- <"동북아지역 초강대국 충돌위험 높아져">(가디언)>(1/2, 연합뉴스)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촉발된 동북아지역의 긴장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맞물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간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음.
 - 특히 역내 안보기구와 중국·일본 정부 간 핫라인 부재, 핵무장 북한의 상존하는 위협은 동북아 지역의 충돌위기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가디언은 분석했음.
 - 이어 신문은 새해 동북아지역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와 관련한 키를 잡고 있는 주인공은 시진핑 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 3인이라면서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센카쿠 열도 분쟁이 총격전으로 비화되면 일본 방위에 나설 것인지는 2014년에 그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中 4세대 전투기, 美 이어 세계 2위 규모”<홍콩매체>>(1/3, 연합뉴스)
 - 홍콩 문화보는 러시아 군사매체 '독립군사평론'을 인용해 중국의 전체 공군 작전기 약 1천700대 중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가 2012년 기준 34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4~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주간지는 1995년부터 2012년 사이 중국 공군 병력은 구식 작전기들이 퇴출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나 이제 중국의 주력전투기는 쟈-10, 수호이-27, 쟈-11 같은 4세대 전투기와 러시아산 수호이-30MKK, 수호이 30-MK2 같은 4.5세대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 독립군사평론은 중국이 보유한 4~4.5세대 작전기의 수가 채 230대가 안 되는 러시아보다 많다면서 중국 공군은 앞으로 4~5세대 전투기의 비중을 70~80%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日관방장관 "입장버리면서 한중과 정상회담 필요없어">(1/3,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신춘 대답에서 "중일, 한일 관계는 과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략적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일본의 입장을 버리면서까지 한국, 중국과 정상 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그는 또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자세"라면서 "특히 중국은 방일 관광객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 자연스럽게 교섭을 벌여 시기가 되면 정상회담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총리로서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참배를 스스로의 결단으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실망 성명'을 낸 데 대해 "총리 자신이 말했듯이 겸허하게 성의를 가지고 참배의 진의를 관계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연구 착수”<日신문>>(1/3,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중추인 항공총대에 '항공전술 교도단'을 설치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 신문은 '항공전술교도단'은 사령부 100명, 전체 1천 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미 준비 요원까지 배치된 상태이라고 전했다.
 -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북한 등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의 무기를 의미하며,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과 공격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 선제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아베 신조 내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제3차 핵실험 등을 이유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자위권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연일 '대남 인권공세'...뭘 노리나(연합뉴스, 12.30)**
 - 북한이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으며 연일 대남 비난 공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동원해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인권단체까지 내세워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겨냥
 - 30일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여지없이 드러난 파쇼폭군의 정체'라는 글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아만행위"라고 규탄했고, 평양방송은 정부를 "인권교살자"라고 비난
 - 이 같은 움직임은 장성택 숙청 이후 두드러지고 있어 '공포정치'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내부의 동요를 의식한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 한국도 '인권 문제국'이라는 인식을 퍼뜨려 밖으로는 북한 정권으로 쏠리는 압박을 분산시키는 '물타기 효과'를 노리고, 안으로는 한국에 대한 적대 의식 고취, 체제 우월성 부각을 통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
 - 한편으로는 그동안 북한 인권상황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한국 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 군 "표류 북한 어선 송환"(미국의 소리, 12.31)**
 - 한국 군 당국은 엔진 고장으로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선과 어민을 북측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힘.
 - 북방한계선을 남하한 북한 어선은 어제(30일) 오후 4시쯤 울릉도 동북방 50~60 마일 지점에서 한국 해군 함정에 발견
 - 엄효식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 선박 어민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위해 현재 귀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북한 외무성 대표단, 영국 수감시설 방문(미국의 소리, 1.1)**
 - 북한 외무성 관리 3 명이 영국의 수감시설을 방문
 - 영국 외교부의 소피 벵거 대변인은 30일 북한 외무성 대표단 3 명이 지난 11월26일 영국의 하이포인트 교도소(Prison Highpoint)를 방문했다고 밝힘.
 - 벵거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영국의 비판적 개입(Critical engagement) 정책에 따라 영국 정부가 교도소를 어떻게 안전하고 질서 있게 관리하



- 며,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가 법에 따라 어떻게 인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북한 대표단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주선했고 설명
- 앞서 영국 외교부의 사이다 바르시 선임 부장관은 지난 17일 상원 보고를 통해, 외교부가 북한 대표단의 교도소 방문을 주선했다고 밝혔으며, 평양주재 영국대사관 외교관들의 북한 내 수감시설 방문도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바르시 부장관은 영국 외교부 당국자들이 지난 11월25일 북한 외무성 대표단과 만나 사형제도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
- **"북한産 마약 국내 다량 유입…김정은 호위사령부 주도"**(데일리NK, 1.2)
- 북한산(産) 마약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지로 다량 유입되고 있으며, 이 같은 북한산 마약 유출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 김정은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라는 증언이 제기
 - 최근 탈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김모(40) 씨는 "김정일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호위사령부에게 마약 밀매를 담당하게 한 것을 김정은이 그대로 이어 받았다"면서 "마약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함경남도 흥남 제약공장은 호위사령부에서 경비를 서는 등 생산과 판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전달
 - 또한 함남 함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60%가 마약 제조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호위사령부가 중국과 행해지는 밀수로 이어지는 모든 마약 유통·판매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식통은 중국으로 밀수입된 북한산 마약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등지로 대거 팔리고 있다고 강조
 -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마약 단속을 인민보안부가 아닌 보위부에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보위부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마약 유통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해 보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겠다는 의도라는 것
- **북, 집단탈북 우려 해상봉쇄 강화(자유아시아방송, 1.3)**
-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이 주민들의 탈북에 대비해 북-중 국경에 이어 해상봉쇄를 한층 강화해, 대형어선들을 모두 주변 해군기지에 옮기고 소형어선들은 군부대 수산사업소들로 옮겼다고 소식통들이 전달
 - 북한이 가족을 동반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해안경비 인력을 대폭 늘렸으며, 동·서해안에 해안경비대 외에 일반 군부대 인력까지 보충해 물샐틈없는 경비망을 구축하고 바다에 나가는 어선들도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강조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원양어선들을 현역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며, 바다에 조업하러 나갈 때에도 현역군인들을 함께 태워나가도록 조치했다고 밝힘.
 - 겨울철에 접어들며 워낙 검열이 심해지고 고기를 잡아 봤자 군인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나면 기름 값도 못 건지기 때문에 중소형어선들은 아예 바다에 나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조성

- 또다른 소식통은 수산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어선들은 모두 개인들의 소유로, 가족들이 함께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해왔으나, 소형어선들을 군 수산사업소들로 옮기면서 가족들끼리만 바다에 나가는 것이 금지됐으며, 고급어종들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

2. 북한인권

● 재독동포단체 "북한은 인권유린 중단하라"(세계일보, 12.30)

- 재독일동포 단체들이 20일 유럽의 한복판인 프랑크푸르트 중심가 자일(Zeil) 거리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중단'·중복세력 발본색원 등을 요구하며 성토대회를 개최

● 정부, 北인권개선 강조하면서 예산은 고작 4400만원(데일리NK, 1.3)

- 지난해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2009년부터 6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인권 주무 부서인 통일부가 관련 예산을 턱없이 부족한 액수를 책정해 실제 북한인권 개선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
- 올해 통일부에 편성된 일반 예산 2174억 원 중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4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중 0.01%에 불과
- 이에 따라 북한인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통일부는 2012,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의원들로부터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바 있음.
-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연도별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몇 년째 동결된 것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야만 예산이 증액돼 북한인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통일부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항변
-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부터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어 이런 상황임에도 북한인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국회만 바라보며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옴.
- 통일부 관계자는 "전체예산이 동결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큰 틀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지난해 미 입국탈북자 14명 뿐(자유아시아방송, 1.3)**

- 미국 국무부가 이달 초 갱신한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말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4명에 그침.
-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보고서는 지난 9월 한 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입국한 이후 3개월 간 미국 정부는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
- 미국 서부에 기반을 둔 대북인권단체 링크의 박석길 정보전략부장은 지난해 이 단체가 구출한 탈북자 90여 명 중 10퍼센트 미만이 미국행을 택했다고 설명
- 박 부장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대기 기간이 한국행을 택할 때보다 훨씬 길어 미국행을 꺼리기도 하지만, 한국 이외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탈북자들이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납북자 12명 생사 확인, 유엔이 北에 공식 요청(조선일보, 12.30)**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북한에 전후(戰後) 납북자 12명에 대한 생사 확인을 공식 요청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WGEID가 북한에 한꺼번에 12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설명
- WGEID가 북한에 생사를 요청한 납북자는 1977년 8월 전남 흥도에서 납북된 고교생 이민교(당시 18세)·최승민(당시 17세)씨, 1970년 납북된 해군 방송선 승조원 정광모(당시 21세) 병장, 1972년 동해 상에서 납북된 유공호선원 남정렬·남무수씨 등 어부 9명을 포함해 12명
- 북한은 이번에도 회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WGEID는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는 조치를 강화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짐.

● **법률구조공단, 6·25 납북자 가족에 무료 법률지원(연합뉴스, 12.30)**

- 생사여부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전시납북자의 가족들이 앞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0일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들과 함께 '6·25전쟁



- 납북자가족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법률지원 대상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전시납북자 가족들이 법원에 제기하는 실종선고 심판청구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사건
 - 협약에 따라 이들 단체는 내년 1월1일부터 납북자 가족의 심사 과정을 거쳐 무료 소송지원을 실시할 방침
 - 공단은 납북자의 생사여부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재산문제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을 이번 협약을 통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6. 국군포로

- **한국 6.25 전사자 유전자 분석, 10번째 신원 확인(미국의 소리, 12.27)**
 -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가족으로부터 채취한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10번째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힘.
 -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지난 1950년 6월 28일 강원도 춘천 인근 원창고개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세한 순경으로, 김 순경의 유해는 지난해 5월 유해발굴 과정에서 수습
 - 유해발굴감식단은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유해에서 채취된 DNA와 등록된 유가족의 DNA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사자 신원을 파악했으며, 김 순경의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

7. 대북지원

- **평양과기대, 의과대 설립 추진... "북 적극 협조"(미국의 소리, 1.1)**
 - 남북한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며, 북한 당국은 평양의 현대식 종합병원인 '김만유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제공하기로 결정
 - 북한 유일의 국제대학으로 관심을 끌었던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올해 의과대학을 설립할 계획으로, 평양과기대 김진경 총장은 오는 5월22일 이 학교 첫 졸업식과 동시에 의과대 건물 기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힘.
 - 5개 의대엔 의과, 치과, 약학, 보건, 간호 대학이 포함
 - 김 총장은 북한 당국이 의과대 설립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평양의 의료시설 두 곳을 대학 측에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
 - 평양과기대 측은 현재 의과대 신설에 필요한 5백만 달러의 착수금 마련과 교수 충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학연구 실험기구와 장비를 갖추는 것도 속제로 남아 있음.
 - 김 총장은 북한의 의료 수준과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려면 의과대학 증설이 시급하다고 언급



● 세계기금, 대북 사업 최상 평가(자유아시아방송, 1.3)

- 세계기금이 지난해 북한에서 펼친 말라리아 대북 사업과 관련해 최상의 평가 도출
- 에이즈, 결핵 등 전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 서방 선진 8개국이 설립한 '세계기금'은 3일 지난해 북한의 대북 사업에 대해 총 5단계로 나뉜 성과 등급 중 가장 최상인 'A1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A1등급'은 목표를 뛰어 넘는 성과를 보였음을 의미
-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 기금은 700만 달러 예산으로 말라리아 사업을 북한 전역에서 방역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백신 접종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만족스러운 성과를 끌어냈다고 설명
- 세계기금은 대북 사업을 최상급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북한 보건성이 대북 말라리아 사업과 관련 북한 내 수혜자와 시설을 선정하는 일과 보건 업무자들을 교육하는 데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언급
- 더욱이 북한은 사업 초기와는 달리 말라리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관계자가 의료 시설에 가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임.

● 적십자, 2014 대북 예산 560만 달러(미국의 소리, 1.4)

- 국제적십자사는 올해 북한에서 56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장 큰 몫은 재난관리 분야에 배정
-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3일 발표한 '2014 대북사업 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예산으로 미화 5백6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힘.
- 이는 지난 해 예산 664만 달러보다 줄어든 것
- 적십자는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에서 8백25만 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보건과 위생, 재난관리 등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재난관리 분야에 가장 큰 몫인 1백96만 달러를 배정
- 여기에는 재해가 잦은 마을에서 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훈련시키는 일, 그리고 재난에 대응해 전국의 7개 적십자 창고에 2만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주방용품과 방수비닐막, 물통을 비치하는 게 포함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2012~2015 국가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감소를 우선과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계를 보호하며 재난 복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
- 보건 분야에는 올해 예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1백89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약품을 공급하고 응급치료를 실시할 계획
- 식수위생 분야에 95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올해 시골과 해안가에서 식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5~6개 마을을 선정해 상수도과 하수구, 화장실 등을 만들어줄 계획
- 나머지 예산은 조선적십자회 조직관리와 훈련, 재난 시 긴급대응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



8. 북한동향

- 北 인권실태를 수록한 '2013 北인권백서'(통일연구원) 발간 관련 '신성한 존엄과 사회주의 영상을 훼손하며 남북대결을 더한층 격화시키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며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12..29, 중통·노동신문/인권교살자들의 파렴치한 광대극)
- 「농근맹」 중앙위 대변인, 12.29 담화를 통해 '민노총'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130여 명을 연행한 것 관련 '괴뢰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파쇼적 폭거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범죄'라며 '근로대중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고 주장(12..29, 중통)
- 경찰의 '민노총' 본부 공권력 투입에 대해 "보수패당의 파쇼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체를 날날이 폭로해준 경악스러운 야만행위"라고 비난하며 '反정부 투쟁' 지속 선동(12.30, 중통·평방·노동신문/여지없이 드러난 파쇼폭군의 정체)
- 北 김종태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평양방직기계공장 종업원들의 '南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현장규탄집회, 12.28·30 진행(12.30, 중통)
- 「직총」 중앙위 대변인 담화 낭독 및 南 노동자들의 지속 투쟁 선동
- 北 「반제민전」 노동국, 12.29 [남조선 전체 노동자대중에게 보내는 격문] 을 통해 "보수패당의 철도민영화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민주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야 할 때"라고 '對정부 투쟁' 선동(12.31, 중통·중·평방)
- 법무부·경찰청·안전행정부 등 당국의 "철도노조원 야수적 탄압(190여 명 고소 등)" 지속 거론 선동(12.31, 중통/민심을 등진 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